

## ●● 학습 활동지 ●●

학교4-H회명 :                  학년   반   성명 :

- 인터넷에서 엘리뇨와 라니냐가 발생한 해를 조사하고 그 해의 기후를 알아보자.

-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은 이산화탄소량의 증가이다.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자.

## ● ● 학습 활동지(논술 참고자료) ● ●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비준하고 55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발효될 수 있는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하여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세계 3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전문가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의 억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일정 및 개도국의 참여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간 의견차이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여 기후변화 레짐에 시종 일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초기에 협약에 참여는 하였으나 개도국의 감축 의무 결여 및 미국 경제상의 부담 문제 등을 사유로 교토의정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25%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순위 1위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신랄하게 받고 있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교토의정서의 감축 의무 준수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 미국의 에너지 소비문화, 취약한 에너지 구조, 그리고 부시 정부의 지지기반인 전력업계의 강력한 로비력 등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개도국들이 배출 삭감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큰 불만이다.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국가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에서 각국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협상이 파국을 맞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리더십과 참여 여부는 국제 레짐의 형성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한국외대 논술 문제 발췌

[illegible]

## ●● 학습 활동지 ●●

학교4-H회원명 :                  학년   반   성명 :

### ● 우리지역 농작물의 재배환경 알아보기

학교4-H회원을 3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재배 조건을 조사하고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되었던 피해 내용을 기록하여 조별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 하여 보자.

조		
농작물 명	재배조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조		
농작물 명	재배조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조		
농작물 명	재배조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 ●● 학습 활동지 ●●

학교4-H회원 :                  학년   반   성명 :

### ● 기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학교4-H회원을 대상으로 기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모집한다.
- 기아체험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중인 기아체험프로그램을 신청 한다. <<http://www.famine24.net>>
  - ❖ 기아체험24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다.
  - ❖ 온라인으로 기본교육(10분)을 받는다.
  - ❖ 진행중인 기아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직접 참여하여 기아체험을 한다.
  - ❖ 행사 후 소감문을 작성한다.

### ● 기아체험 후 활동

- 기아체험을 마친 학교4-H회원들은 기아체험의 소감을 발표한다.
  - ❖ 기아체험 참가자는 전원 소감을 발표한다.
  - ❖ 기아체험을 통해 배운 것을 이야기 한다.
  - ❖ 진정한 지구촌의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여 본다.
  - ❖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여 본다.

## ●● 학습 활동지(논술 참고자료) ●●

‘절대 빈곤’은 기아, 영양부족, 문맹, 질병, 높은 영아 사망률, 짧은 수명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참한 삶의 상태이다. 현재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유지할 수 없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반면 현재 OECD 국가의 많은 국민들은 의식주, 교육, 의료서비스 등과 같이 삶에 필수적인 것 이상의 소비를 할 여력이 있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 상태에서 죽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사치와 풍요를 누리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 이들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과 이들을 살해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약속 장소에 가던 중 어린 아이가 연못에 빠져 익사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하려면 옷이 젖고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약속 시간에도 늦게 된다. 이 경우에 개인적 손해와 불편함을 겪게 되겠지만, 아이가 빠져죽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아이를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치나 쾌락을 위해 절대빈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출처 :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학”〉

[illegible]

## ●● 학습 활동지 ●●

학교4-H회명 :                      학년   반   성명 :

### ● '토종종자 채취하여 파종 육모하기' 과제활동

최근 환경오염 및 외래종의 토종 잠식 등으로 지천에 널려 있던 토종 민들레와 할미꽃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학생4-H과제활동으로 토종 민들레와 할미꽃의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 육모하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재배하여 얻은 종자를 우리 주변에 퍼뜨리는 활동을 하여 보자.

#### ❖ 토종 할미꽃, 토종 민들레 종자 채취하기

- 토종할미꽃과 민들레 종자에 대한 사전 지식 습득(인터넷 활용)
- 학교 주변 및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토종 종자 채취
- 채취된 종자는 종자 보관 방법에 의해 보관

#### ❖ 학교내 공동 실습포 조성

- 학교내 토지에 실습포를 조성함
- 토종 할미꽃과 토종 민들레의 파종시기에 맞게 파종
- 식물의 재배 과정을 과제활동기록장에 기록
- 재배 후 종자를 채취함

#### ❖ 토종종자 나눔 및 교환

- 인터넷에서 토종 종자를 구하는 사람과 나눔과 교환
- 지역의 들과 야산에 종자를 파종하여 토종 종자를 퍼트림



## ●● 학습 활동지(논술 참고자료) ●●

세계는 지금 수입개방에다 소리 없는 ‘종자전쟁’을 치르고 있다. 나라마다 종자(種子)의 확보와 보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유는 다름 아니다. 식물 및 생물종의 확보와 개발이 국부(國富) 창출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포성은 1968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결성된 후 울렸다.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인정·보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처럼, 신품종을 이용할 경우에도 개발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감귤의 경우, 과거처럼 무상으로 신품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도내 감귤농가 등이 지급해야 할 로열티가 2014년 100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35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와 있기도 하다.

〈출처〉 제주일보 2011. 9. 9일자 기사자료

☞ 위의 기사문 내용을 보고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800자 이내로 논술하시오.

[illegible]

## ● ● 학습 활동지(논술 참고자료) ● ●

### 한·미 FTA, ISD만 문제일까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이는 정부·한나라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간의 논쟁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이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ISD 정도를 가지고 정략적인 합의를 하거나 강행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관세 철폐에 의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독소조항으로도 농업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ISD의 경우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농협에 의한 대농민 지원사업을 중단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미국의 정유사가 농협의 면세유사업이 자기 기업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제소한다면, 또한 미국측이 낮은 정책자금 금리와 농협의 독점 등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른바 ‘래칫(역진방지)’이라고 불리는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 향후 농업개방으로 농업이 초토화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개방폭을 줄일 수 없게 된다.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이란 것은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한·미 FTA에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으로 미국기업이 기대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하면 제소가 가능한 ‘비위반제소’라는 조항도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로 인해 정부 산하기관의 민영화가 가능해 질 수도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키고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FTA를 비준하면 안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1년11월21일자 (제2386호) 사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horizontal blue lines spaced evenly across the page, typical of notebook or primary writing paper. The lines are thin and light blue, set against a plain white background.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 탄소 가계부

학교명		성명		가족수		
기본입력사항(해당란에 √표시를 하시오)						
자가용을 이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기차를 이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난방연료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① 가스 ② 전기 ③ 등유 ④ 연탄		
취사연료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① 가스 ② 전기 ③ LPG		
에너지 사용						
가스 사용량	자원사용량		m³/월	CO₂ 발생량	kg	
수도 사용량	자원사용량		m³/월	CO₂ 발생량	kg	
전기 사용량	자원사용량		kWh/월	CO₂ 발생량	kg	
쓰레기 배출량	자원사용량		L/월	CO₂ 발생량	kg	
가정에서 배출되는 CO₂ 총 발생량					kg	
교통						
자가용	자동차종류		이동거리	km/월	CO₂ 발생량	kg
버 스	탑승시간	분/일	이용횟수	회/월	CO₂ 발생량	kg
지하철	탑승시간	분/일	이용횟수	회/월	CO₂ 발생량	kg
귀하의 한 달 간 CO₂ 총 발생량					kg	
한 달간 배출한 CO₂ 총 발생량 상쇄시키기 위해 심어야 할 나무 수는?					그루	